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강한 여자, 약한 남자-마지막회>

아무리 여자가 강하고 남자가 약하다고 한들, 세상이 바뀌고 누가 무어라 한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며, 나는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싶다. 세상의 남자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나만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싶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혼자 사는 남자>이고 싶다.

결혼과 성공이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신이 주신 선물 중에 <가족>이라는 단어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면 굽이굽이 힘든 고비도 많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 때 내 옆에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 이자리에 내가 남아 있을까. <지금의 가족이 없었다면> 나의 즐거운 추억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을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행복했을까.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의 부드러움을 받는들 행복했을까.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행복했을까.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하며 거룩한 성자로 대접받는다고 행복했을까... 나의 행복은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요, 거룩한 것도 아니다. 나는 소박한 나의 조그만 사랑을 계속 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결혼하여 딸 둘과 아들 한명이 태어났다. 많은 세월동안 그 가족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또 많은 세월이 그들 때문에 사는게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많았다. 특히나 이민의 삶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줄은 미처 몰랐다. 사춘기 시절의 자식들은 내 마음같지 않았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 자식들을 원망하며 좌절하고 분노한 세월도 많았다. 김정운 교수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 제목처럼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 적도 있었다. 세상의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콩각지가 썩워도 그렇지 이것 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너무 성급히 결혼을 한 것은 아닐까. 막상 살아보니까 자라온 환경이며 성격이며 취미며 외형이며, 맞는것 보다 맞지 않는게 더 많으니 내가 잘못 판단한게 아닐까. 후회는 후회의 꼬리를 물고 밤을 꼴딱 세운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정작 힘들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쓰러진채 그대로 죽고 싶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내곁을 떠나갔을 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그렇게 허허벌판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일으켜 주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내가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고 존재의 목적이 되었다.

흔히들 사람들은 나를 공처가라기도 하고 애처가라기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돈은 누가 버는가? 내 돈은 내가 벌어서 아내에게 모두 준다. 재산 명의는 모두 아내 이름으로 한다. 아내도 돈을 벌지만 나는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 묻지도 않으며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밥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다. 반찬이나 요리는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다. 설거지는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다. 청소나 빨래는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들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다.그러면 맥의 아내는 무엇을 하는가? 아내는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아내가 선택한 일들이다.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물론 아내도 돈을 벌기 위해 일도 하고 반찬도 하고 내 도시락도 매일 만들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어느 어머니 못지않게 한다. 하지만 아내의 일은 아내의 일이고,나의 일은 나의 일일 뿐이다. 아내는 무슨 일을 하든 내 옆에 있어만 주면 된다. 물론 어느 날 홀연히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떠나가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떠나가는 여자에게 치사스러운 남자는 되기 싫다. 그러기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두 주어야 한다. 나는 빈털털이가 되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오랜 세월동안 <혼자 사는 연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별 연습>은 남은 세월동안의 <사랑 연습>이다. <10 월의 어느 멋진 날에>의 가사처럼 “창 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 사랑은 가득한 걸 / 널 만난 세상 / 더는 소원없어 / 바람은 죄가 될테니까// 살아갈 이유 / 꿈을 꾸는 이유 / 모두가 너라는 걸 / 네가 있는 세상 / 살아가는 동안 / 더 좋은 것은 없을거야” 나는 그렇게 소망하며 살고 싶다.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다. 부자로도 살았고 가난하게도 살아보았다. 한 시대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이 되어 보기도 했고 아무도 모르는 들몰처럼 살기도 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했고 내가 결정한 일이다. 그 중에는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다. 누구를 원망하며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만하면 잘 산 세월이다. 그리고 보면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며 내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다. 이 나이에 혁명을 할 것도 아니고 죽기살기로 돈을 벌 것도 아니며,
남을 복수거나 미워할만큼 한가한 세월도 아니다. 지금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혼자만의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내면의 울림을 들으며 내 영혼의 소리에 귀기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고 싶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나만의 오솔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싶다...